



베데스다대학교 졸업식에서 60명이 졸업했다.

“하나님의 꿈 꾸며 세상으로 나아가라”

베데스다 졸업식 거행... 타민족 졸업생이 절반 이상

베데스다대학교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이 17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거행됐다. 이 학교는 1976년 순복음중앙성경대학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452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올해는 학사 43명과 석사 17명 등 총 60명이 졸업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도 타민족 아시안, 흑인, 라티노 등 한인인 아닌 국제 학생이 전체 졸업생의 절반을 넘었다.

졸업식에서는 전 총장인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진 목사는 “꿈꾸는 자가 되라 (창37:18-20)”는 설교에서 “같은 시대, 같은 대학,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는 여러분의 미래는 꿈을 꾸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을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이영훈 담임목사가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학위수여 후에는 김성혜 공동이사장과 김경문 공동이사장이 각각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이 학교는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와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로부터 정식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학, 음악학, 유아교육학, 경영학 등 학사 과정과 목회학, 신학, 음악학, 경영학 등 석사 과정을 두고 있다.

사랑의띠선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LA 지역 장애인들을 섬겨온 사랑의띠선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해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 단체는 한국의 엘리멘트선교회 LA 지부의 역할도 하면서 다양한 영성 집회와 행사로 장애인들을 섬겨 왔다. 사랑의띠선교회 대표 김천환 목사는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예배는 6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선교회 예배실(1300 W. Olympic Blvd. #200 Los Angeles CA90015)에서 드리게 되며 하와이갈보리교회 김성희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또 김민경 선교사와 카이로스 운동팀이 공연한다. 참석자들에게는 후원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을 선물하

며 저녁 식사도 마련된다.

한편, 사랑의띠선교회는 오는 7월 한국 포천중앙기도원에서 열리는 제28회 장애인 부흥 대회에도 참여하며 11월 중순경에는 한국 엘리멘트선교회 고창수 사무총장을 초청해 LA 선교 집회를 연다. 고목사는 무려 30년 동안 장애인 선교에 헌신한 인물이다.

문의) 213-736-6625



본지 주최 ABC상담대학교육 1기 수료생들

“아름다운 대화로 아름다운 삶을”

ABC상담대학교육원 주관 지도자 과정 수료식

본지가 주최하고 ABC상담대학교육원(대표 여천기 박사)이 주관한 ‘아름다운 대화 기술 지도자 과정’ 수료식이 지난 15일 있었다.

이 과정에는 9명이 참여해 4주간의 20시간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다. 이들은 대화지도자 수료증을 받고 대화 기술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세계복음화성취선교회 대표 서요한 목사는 “모든 한인교회 사역자들이 아름다운 대화 기술을 배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정신의학 박사이기도 한 여천기 대표는 “우리의 일상 생활은 크고 작은 일과 도전의 연속이다. 쉬운 일, 어려운 일, 다양한 일들이 매일 삶의 연속이다. 배우자를 만나 맞추어 사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우리는 이런 힘든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대화 기술은 자신이 먼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웃과 가족과 자양분 있는 대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고 소개했다.

ABC상담대학교육원은 자녀들의 행동 발달 장애, 마음의 상처, 심각한 정신 질환, 자살과 우울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지도자들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오는 9월에 다시 한번 본지와 함께 제2기 지도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1기를 졸업한 이연주 전도사는 오는 7월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다. 그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교회의 사역자는 꼭 이 대화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명미 박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술은 공감”이라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나의 의견을 전할 때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밝혔다.

고명희 강사는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다는 말이 있다. 대화는 서로 통하는 것이다. 서로 통하지 않으면 가정도 불행하지만 아름다운 대화 기술을 배우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 자녀의 어머니이면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유진 씨는 “이번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존중하시며 사랑하시는지를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 여천기, 여명미, 고명희 강사님의 솔직한 경험담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권 웰비 기자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7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든 학위 과정을 100% 온라인 강의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소지 BA,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자금 보조 (Title M) 가능. (보조는 자격 요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졸업후 상환하지 않음)

- 1 ESL 과정**
 - 친절하고 우수한 강사들이 학생들의 언어 레벨에 따라 지도하는 맞춤형 언어교육
 -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최적화된 언어교육 과정
- 2 학사(B.A.) & 교역학석사(M.Div.) 과정**
 -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의 우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
 - 다문화, 다인종 공간에 맞는 신학교육
 - 경건과 학문에 기초한 선교지향적 신학교육
- 3 크리스천상담심리석사 (M.A.C.C.P.) 과정**
 - 이론과 임상을 겸비한 전원 Ph.D. 학위 소지 교수진
 - 성경과 복음적인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로운 통전적 상담심리
 - 현대에 맞는 크리스천 상담심리이론의 숙지와 실제적인 활용
- 4 특전**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학교
 - 인터넷만 있으면 원격강의로 전세계 어디서나 학위과정 이수
 - 교단 산하 북미주,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470여 개 교회와 선교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 전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 (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로서는 물론 예장통합 (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 (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ESL 문의 및 상담

- 박동식 교수 (dspark@ptsa.edu) www.facebook.com/SLCS.EPT

www.ptsa.edu | 1-20 발행 | 정회원 정회원 후보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유명기 목사 |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미성대학교 제15회 학위수여식

미성대학교, 제15회 학위수여식 거행

미성대학교가 제15회 학위수여식을 학교 채플실에서 지난 3일 거행했다. 먼저 예배는 황의정 대학원장의 인도로 시작해 권다윗 동문회장이 기도했다. 이상복 미주성결교회 총

회장은 “성공적인 생애(창45: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학위수여식은 윤석길 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돼 총장 및 교수들이 학위를 수여했다. 류종길 총장이 훈화한 후, 파송의 기도를 드렸다.

이어 언더우드대학교의 리차드 윤 총장이 축사, 김종환 박사원장이 격려사, 페이스 김 박사가 축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신학 학사 6명, 목회학 석사 4명, 상담학 석사 3명, 선교학 석사 1명, 목회학 박사 1명, 상담학 박사 4명, 명예박사 2명이 학위를 받았다.



영화 포스터의 일부

조선의 테레사 수녀 서서평 선교사를 만나다

CGV 부에나팍 극장에서 상영

한국에서 개봉 후 관객 10만 명을 넘어선 기독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CGV 부에나팍 극장에서 상영된다.

‘조선의 테레사 수녀’로 추앙받는 서서평 선교사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CGNTV가 제작했으며 한국에서 지난 4월 26일 개봉된 후 1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157,793명을 동원한 영화 <회복>에 이어 역대 한국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2

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32살의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인 서서평(본명: 엘리자베스 요한나 웨핑)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서서평 선교사는 현재의 ‘뉴욕신학교’를 졸업한 후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왔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그는 미국 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성교사 7인’ 중 유일한 한국 파견 선교사이기도 하다.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테레사’로 불리며 나환자와 결인, 고아와 오갈 곳 없는 과부를 돌보며 일일학교(한일장신대학교 전신), 조선간호부회(대한간호협회 전신), 여전도회연합회 등을 창설해 여성운동과 간호분야에 힘썼다.

그의 사역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조선을 위한 헌신 때문이다. 평생을 보리밭에 된장을 먹었고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녔으며 무명한복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조선인처럼’이 아닌 ‘조선인으로’ 살기 원했던 것이다.

22년간 14명의 고아를 입양했고 38명의 과부를 돌보아 ‘버려진 소녀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 조랑말을 타고 전국을 누볐다고 한다. 특히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일일학교를 세워 10여년 간 265명이 졸업하는 등 여성 교육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 세상을 떠났고 당시 그가 남긴 재산은 강냉이 2홑과 동전 7전, 담요 반장이 전부였다고 한다. 시신은 의료 연구를 위해 해부용으로 기증했다. 그의 장례는 광주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고 유해는 광주시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됐다.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인기 배우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미주 CGNTV에서는 CGV에서의 상영을 마친 후, 교회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회나 단체에서 상영을 원할 시 방편해 상영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체 관람 및 상영 문의는 714-252-6826로 하면 된다.



찬송가 경연대회 모습

어르신들 찬송가 경연대회 개최

장애우사랑교회(오진형 목사)가 제22회 찬송가 경연대회를 지난 17일 오전 10시 중앙양로병원에서 개최했다.

찬송가 경연대회 앞서 드린 예배는 오진형 목사의 인도로 남가주한 인목사회 회장 김영구 목사의 기도, F.H.B 대표 이기원 회장의 성경봉독, Bliss 앙상블의 특별공연, 송중호 목사의 말씀 선포, 아브라함 임 목사(참길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찬송가 경연대회는 라디오코리아의 인기 MC인 김수정 씨의 진행으로 총 11분의 어르신들이 찬송가 338장을 외워 불렀다. 이들은 무려 6개월간 이 찬송가를 모두 암송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에게

대통령 봉사상도 수여됐다. 평생봉사상이 William Chun, Ming Tseng, Pyunsu Bak에게, 600시간 봉사상이 An Chi Pan, Xing Yin, Zhi Sheng Guo, Junho Byun 외 11명에게 수여됐다. 연방하원 봉사상은 라디오코리아 진행자인 한미옥, 김은주 씨와 이한우 반주자에게 수여됐다.

한편, 이 찬양대회는 행복재단, 은혜한인교회, 나성열린문교회, 참길교회, 마동환 변호사그룹, 올림픽칼국수에서 후원했다.

주최측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매, 쇠약해진 몸, 정신적인 외로움을 벗어나 천국 소망을 갖게 하고자 찬송가를 암송하게 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주최측은 봉사자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213-545-4787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가 6월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기독교한의사협 정기 모임 및 선교보고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는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소망장로교회에서 열린 6월 정기예배 모임에서 아프리카 부룬디의 신인환 선교사로부터 한센인 의료치료 선교보고를 들었다.

이어 유창범 원장이 “8제질 침범”

강좌와 치료 시간을 가졌다.

이 협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에 정기예배 및 한의학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마가교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한방 치료를 했다. 문의) 213-704-8541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가 없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가주 지역교회를 섬기는 제2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참가신청 QR CODE)

-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6일(수)
-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 대상** 한인 중, 고등부 학생(6~12학년)
- 모집기간** 1차 - 6월 18일(주일)까지 / 2차 - 7월 9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 등록비** 무료
- 신청방법** www.lafgc.co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출석교회의 담당 교역자나 담임목사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주관및문의**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Tel. 951-928-4415)





올림픽장로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장로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올림픽장로교회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예배를 18일에 드렸다. 최근 이전한 3020 Wilshire Bl. 예배당은 교인들과 축하객들로 가득차서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었다.

사회는 이 교회를 개척한 1세대인 정장수 담임목사가 말았고 기도는 동사목사인 젊은 차세대 권태산 목사가 맡았다. 설교는 캐나다서부장로교회 박현승 목사가 “더 좋은 교회(사1:1-3)”란 제목으로 전했다. 박 목사는 “올림픽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더 기도하는 교회, 더 앞장서는 교회, 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LA의 롤모델과 같은 ‘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교회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25주년 기념책자도 발간했다. 이 책에서 정장수 담임목사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25년이였다”면서 “지금까지 저를 버릴 수 있게 한 가장 큰 힘은 기도였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구제영 장로는 교회에 대해 “최소 2년마다 모든 성도가 성경 전체를 읽고 공부하는 교회, 싸움과 분쟁이 없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자랑했다. 정장수 담임목사에 대해서는 “평생을 인내와 기도로 주님밖에 모른다”고 소개했다.

24년간 이 교회를 섬긴 이현 장

로는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기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는지 간증하며 “저의 작은 수고를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을 섬기게 해 주시고 죽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소서”라고 썼다.

권태산 동사목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글에서 “미래의 인간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더 진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피뎀은 복음”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 길이 우리를 바로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라고 전했다.

죽음 준비 전문가 교육생 모집

소망소사이티어에서는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죽음 준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제1회 죽음 준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소망소사이티어는 유언서 작성 운동, 치매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죽음 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본 교육은 소망소사이티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교육의 목적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요구에 부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난 4월 소망소사이티어가 소망 치매 포럼을 열었던 모습.

지키며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론과 실재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신청마감일은 2017년 7월 5일(수)이고 소망소사이티어 사무실(Somang Society, 17211 Valley

View Ave. Cerritos, CA 90703)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시는 2017년 7월13일~15일(목~토), 등록비는 \$250이다. 문의는 562-977-4580 혹은 somang@somangsociety.org로 하면 된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금 해설요? 15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라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나성제일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나성제일교회 50주년 맞이 기념 음악회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지난 18일 주일 저녁에 본당에서 열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이상영 단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연습했다. 전 교인이 하나되는 뜻깊은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개회기도에서 김문수 목사는 “삶에 지친 분들, 씬과 안식이 필요한 분들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한다”고 기도했다.

공연을 한 할렐루야성가대는 지휘 안정화, 반주 김소희, 소프라노 김성실 김수현 김혜원 박주경 손혜아 이경옥 이상란 한영애, 알토 김미야 박현우 신영미 이은우, 테너 성재성 이상영, 베이스 임광남 유철목, 기타 지미 정, 드럼 이정남 등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다.

이어 피아노 나오미 임, 바이올린 이나래, 비올라 유혜리가 연주했고 독창으로는 테너 오위영, 이종창은 김혜원, 유철목이 연주했다.

권 헬비 기자



남가주교역자회가 가족수련회를 열었다.

미주성결 남가주교역자회 수련회 열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김희창 목사) 가족수련회가 엘에이동지방회, 엘에이지방회, 남서부지방회는 물론, 북가주지방회까지 참석한 가운데 벤주라 하버에 위치한 포포인트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미주성결교회 이상복 총회장이 개회 설교를 전했다. 주강사로는 인천계산장로교회 담임 김태일 목사가 참여했다.

특강에서는 여운영 목사(UGN 대표)가 ‘침단 문화 혁명적 패러다임 변화와 사역 방향, 김희창 목사가

‘문화지수(CQ)와 사역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또 안신기 목사(엘에이동지방회)가 ‘한인 이민교회의 다문화적 성경해석’을 발표했다.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영기 선교사의 아들 폴 리가 인도했다.

이회창 목사는 “이번 수련회는 다양한 교회와 평신도들의 후원으로 저렴한 참가 비용만으로 진행됐으며 바닷가에서 목회자 가족들이 쉼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신문 한 부의 기적” 국민일보 보내기 캠페인 후원 세미나 1차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세미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대해 드라마를 보듯, 역사적 순서에 의해 **선교학적**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세미나 입니다. 5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설교, 성경공부 인도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7월 10일(월) 9:00AM~5:00PM

장소 월드미션대학 채플홀(6층)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접수 8:30AM~9:00AM
회비(사전 등록): 개인 \$10, 부부 \$15(점심, 다과, 교재비 포함)
당일 등록: 개인 \$15, 부부 \$25

연락처
Jane Kim (818)383-8743 | 김중환 총무 (562)215-2634
janeyla618@yahoo.com | joongokkim@yahoo.com

***식사 준비 관계로 사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김권수

이력 & 학력
6/16~6/18/2017
ASM(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선교학박사 연구논문 발표
(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전문 강사
(현) ANC 인성크대학 성경학과 담당 교수
11/2010~2012: ANC DTS 담당목사

(현) 선교학박사(DMiss) 과정중 / 풀러신학대학원
선교신학석사(ThM) /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 월드미션대학

ANC 온누리교회
성경통독 담당목사

강의내용

9:00 AM ~ 12:30 PM - 구약 강의 (창세기 ~ 말라기)
1:30 PM ~ 4:00 PM - 신구약 중간사 & 신약 강의 (마태 ~ 요한계시록)
4:00 PM ~ 5:00 PM - Open Discussion(Q & A, 자유토론)

• 주최: 월드미션대학(WMU) | • 후원: 국민일보, ANC 온누리교회, 월드미션대학 동창회, Tour Premier(성지순례 전문)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3>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선교 소명을 받으라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지난 주간 중에 엘에이에서 교회를 개척한지 2년 되신 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다. 가정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2년 여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립하게 되었고 올해부터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한다. 그러나 아직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젊은 목사님도 아직 선교사나 선교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필자를 소개받고 선교에 대한 상담을 한 것이다.

그 목사님은 내게 선교사나 선교지를 소개해 달라 했다. 물론 몇 분의 선교사들을 추천해 드렸으나 그 전에 몇 가지 안내를 해드렸다.

먼저 단기선교든 후원선교든 교회가 선교를 하기 전에 목회자부터 선교 비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목회자가 충분한 기도 가운데 선교 비전을 갖지 못하고 막연한 영적 부담감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시행착오가 많은 것이 없다.

일단 목회자와 교회 전체가 선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교회로 초청하여 선교집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엘에이에도 선교 전문성을 가진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분들 중에 목회자가 기도한 후, 한두 분을 초청하여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말씀 중에서 얻은 은혜와 선교 목적을 품고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목회자에게 선교지에 대한 깨우침을 주신다.

그렇게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선교지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그 목사님은 필자의 권면에 동감하였고, 몇 분 권해 드린 선교사들 중에서 교회의 여건에 맞겠다 싶은 두 분을 초청하여 교회에서 먼저 선교집회를 갖겠다고 하였다.

극히 소수이겠지만 교회에서 가는 단기선교를 아무 계획이나

기도 없이 마치 나들이 가는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보았다. 매우 위험하다. 선교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가지면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탄은 어떻게든 선교를 막으려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선교를 여행가듯이 가게 하는 것일 것이다.

교회는 단기선교를 사탄과 본격적인 전투를 치르는 전투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엄청난 영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영혼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단기선교가 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현재의 영혼도 구원 못 하고, 그 영혼도 잃고 만다. 그렇게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 군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지상 최고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에게 부여하신 권능을 회복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교회는 권능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맡긴 저 열방의 영혼들을 두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싸워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가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성경의 결론은? 김권수 목사 성경 세미나 오는 7월 10일 월드미션대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의 결론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는 제대로 알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김권수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한 계기다.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그는 평신도 시절부터 성경 자체에 관심이 많아 성경을 수십차례 정독하고 여러 통독 세미나에도 다녀왔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구나!”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대하드라마 보듯 역사 순으로 배우는 성경 공부를 개발했다. 누구라도 60시간 분량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메시지를 한눈에 보듯 깨달을 수 있다.

김 목사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성경 공부가 주제별, 교리적, 인물 중심, 또는 책별로 하는 교육이었다면 이 세미나는 성경을 시대적인 순서에 입각해 마치 인류 역사의 대하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한눈에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자들의 이론이나 주장보다는 신앙 생활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관점에서 보게 된



김권수 목사

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였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요14:6)이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전했다.

현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는 매 주일 오전 8시부터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김 목사는 ANC온누리교회에서

인성크대학 성경학과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이번에 김 목사는 이 성경 공부를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더욱 알리기 위해 특별 세미나를 여는 것이다. 그는 “이 세미나에 참가하고 나면 스스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뿐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통전적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드미션대학교 6층 체펠에서 열린다. 오전에는 구약 전권을 강의하며, 오후에는 신약 전권을 강의한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 시간도 진행되므로 교회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김 목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으로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끝날 것인지, 또한 성경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역사임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맥을 잡게 될 것이다”라고 이번 세미나를 권했다.

사전 등록하면 개인은 10달러, 부부는 15달러다. 당일 등록하면 개인은 15달러, 부부는 25달러다. 이 비용에는 점심 식사, 다과, 교재비가 포함돼 있다. 문의는 제인 김(818-383-8743)이나 김중환 총무(562-215-2634)에게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라미라다 가든 꽃집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e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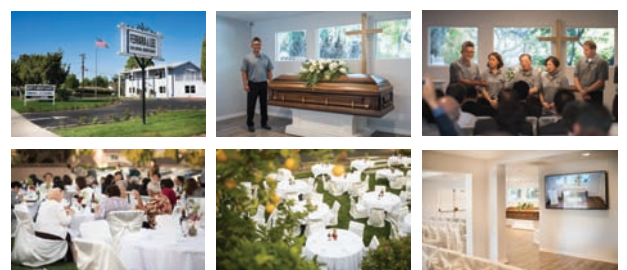
리스장의사 LEE'S FUNERARIO
FERRARA & LEE'S MORTUARY Un Mortuario Colonial De Empresas Ferrara

- 왜, 리스장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의사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Since 1966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의사

리스장의사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의사 10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랏과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캐터링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의사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뉴저지교협이 호산나복음화대회를 위한 5차 준비기도회를 15일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에서 열었다.

호산나복음화대회 위한 준비기도회 뉴저지교협 주관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 주제로

뉴저지교협(회장 김종국 목사)이 주관하는 2017 호산나복음화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이 15일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담임 김은범 목사)에서 제5차 준비기도회를 열고 호산나복음화대회를 통한 뉴저지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송호민 목사(한성교회)의 사회로 김태수 목사(뉴저지침안교회) 기도, 양준길 목사(필그림교회) 설교, 김은범 목사(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축도, 김종국 목사(새언약교회) 인사 및 광고 등의 순서로 1부 예배를 드렸다.

2부 기도회는 육민호 목사(주수원교회)의 인도로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오범준 목사(방주교회), 이정환 목사(뉴저지순복음교회) 등이 각각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뉴저지 교계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하여, 호산나전도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등을 기도제목으로 각각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날 양준길 목사는 '예수의 증인 되리라'(행1:6-8)는 제목의 설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진행되는 호산나복음화대회를 통해 뉴저지에 예수의 증인되는 많은 이들이 일어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뉴저지교협은 호산나복음화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6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6차 기도회는 22일 뉴저지소망교회로 예정돼 있다.

올해 호산나복음화대회는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한소망교회에서 개최된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 주일은 오후 5시에 열린다. 강사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다. 전도대회 이후 목회자 세미나는 26일 오전 10시 한소망교회에서 진행된다.



연합장로교회가 평화의 소녀상에 성금을 전달했다.

애틀랜타교계 '평화의 소녀상' 건립 후원 중앙장로교회, 연합장로교회 등 참여

한인 교계가 제막식을 앞둔 '평화의 소녀상' 건립 후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먼저 지난 11일 애틀랜타중앙장로교회(담임 한병철 목사)가 애틀랜타평화의소녀상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에 1천불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병철 목사는 "소녀상 건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도시인 애틀랜타에 소녀상을 건립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게 돼 기쁘다.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한인교회들도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한 목사는 "브룩헤이븐 시의 결의에 감사하다. 일본은 항상 이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나, 사실은 인권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임시당회장 심우진) 역시 지난 12일 5천불의 성금을 전달했다.

심우진 목사는 "이번에 애틀랜타에 소녀상을 세우는 일에 앞장 서 주셔서 감사하다. 소녀상 건립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이 위로 받고 인권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교회 당회는 지난 10일 회원들의 전체 결의로 이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규 위원장은 "담임목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성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소녀상이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수 있는 동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브룩헤이븐 시의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평화의 소녀상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제막식은 오는 30일(금) '블랙번II' 공원에서 거행된다.

윤수영 기자

한반도 통일 향한 꿈 나눈다!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위한 사역과 방향을 공유하는 "뉴코리아섬김수양회"가 오는 7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미국 워싱턴주 안디옥선교훈련원에서 열린다.

뉴코리아섬김수양회는 지난 10년 간 한국에서 통일비전캠프로 진행돼 오다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뉴코리아섬김수양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진행된다. 뉴코리아섬김수양회에는 부흥한국이 함께 하며 감사로는 한국 예수전도단(YWAM)을 창립한 오대원 목사와 성령의샘 대표 피터 양 목사, 의료선교사 이영호 박사와 부흥한국의 고원원 선교사가 나서서 통일의 꿈을 심을 예정이다.

수양회는 기독교 세계관과 통일, 북한

교회사,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 남북 관계 등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로 진행되며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안디옥선교훈련원은 "우리 민족을 향한 신의 뜻과 계획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의인들이 가득한 나라 '뉴 코리아'에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시원한 생수가 흐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초대했다.

수양회 사전 등록비는 350불, 당일 등록은 400불이며 식사와 숙소가 제공된다. 자세한 등록 문의는 성령의 샘으로 하면 된다.

전화) 360-794-6043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전중학교 / 토요일-17와비몬트코너 주중사택-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사를 배워지며, 이단(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언택처 T. (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연제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한현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우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박영천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10:00-오후 1:00 한인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회 오전 11:00-오후 6:00</p> <p>서건오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믿어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인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모 오전 11:00</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모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인 모임 오전 11:00</p> <p>김영구 담임목사</p> <p>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p>
<p>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p> <p>김중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eew@hotmail.com</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초를 소, 천 초 정신의 초를, 바른교회관의 초를</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모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모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박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교회 토요일 오전 9:30 수요쿠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 저녁 8:00</p> <p>강장규 담임목사</p> <p>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p> <p>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p> <p>오늘 성경 읽으셨나요?</p> <p>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민들레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조종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금회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이 할-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새벽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예배 성경공부 10:4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2부 11:00, 주/코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50, 금요일성경대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어린이) 오후 1:30, 아베마리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월-토) (월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츄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양치호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예장대신-백석 총회 통합 결의 무효 법원, 대신 수호측 승소 판결

예장백석과 예장대신 총회가 통합을 결의한 2015년 제50회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안양지법 제1민사부는 16일 대신 총회 수호측 목회자들이 통합 대신(백석) 총회 장종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5가104232)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50회 총회에서 이뤄진 백석 측과의 통합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하고, 그들이 '대신' 명칭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장 대신 수호측 양치호 총회장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즈음하여'라는 목회서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며 "재판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며 대신을 지킨 동역자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예장대신 총회 수호측은 19일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신' 교단과 백석 교단의 불법 통합에 대해 법원 무효 판결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의 지체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채 교단이 해산되거나 통합될 수 없다는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백석 교단과의 통합에 합류한 교회는 대신 교단을 이탈한 것이 명백해졌다"고 천명했다.

성명서에서는 "저희는 양 교단의 통합을 단순히 반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합을 진행해야 할 것과 그 절차를 무시하면 또 다른 분열과 아픔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양치호 총회장이 직접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병삼 목사 "복음을 마케팅하라!"

김병삼 목사(만나교회)가 평소 즐겨 쓰는 "복음을 마케팅하라!"는 말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지난 13일 김 목사는 "제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마케팅하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목회자들에게 반감을 일으켰던 말 가운데 하나"라며 "세상에서는 물건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팔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시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마케팅의 중요한 원리는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일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사려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케팅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느냐"며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창조적 소동'인데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만나교회를 처음 담임하던 시절 우리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던 말이 있었다. '만나교회 담임목사는 아버지를 이어 세습한 교회래요!'라는 말"이라며 "교인들에게 있어 '세습'이라는 말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이 억울하게 들었던 모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실 담임목사를 결정하던 때,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을 하고 계셨고, 교인들 대표들이 모여 무기명투표로 결정했고, 또 조금 자랑을 하자

이들은 "이번 판결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교회의 하나 됨을 깨뜨리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추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교단 통합의 올바른 선례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교회는 비법인 사단임으로 총 구성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지 않고는 해산되거나 통합할 수 없으므로, 지교회는 총 신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 결의를 해야 하고 그렇게 결의한 교회가 교단 전체 교회의 4분의 3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집행한 것이 선고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된 교단 통합으로 인해 5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자생 교단 '대신'은 또 다른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권주의로 인해 추락한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에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단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질의 응답에서 양치호 총회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 중"이라며 "곧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부총회장 김동성 목사는 "예장 백석 교단에서 '대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부총회장은 "한교연 등에서 저희가 '대신'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려 했더니, 백석으로 간 이들이 저희가 '대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교단 이름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도 했다.

양 총회장은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화합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 측은 "해외를 포함해 저희 총회에는 711개 교회가 있다"며 "이미 돌아온 교회도 있고,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이대용 기자



이스라엘의 전경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6)

나뭇의 포도원과 이스라엘 요새지

이스라엘이 지명으로 처음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후 땅을 나누는 가운데 유다 자손의 기업으로 거론된 곳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다.(수15:20,56) 주변의 여러 도시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골짜기이면서 하나의 작은 마을 이름이었던 것 같다. 실제로 이 지역은 유다 자손이 거주하지 않았고 잇사갈 자손이 제비 뽑아서 당첨되어 기업으로 받은 땅이 되었다.(수19:17-23)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하니 아마 그녀는 이스라엘 출신이었다 보여진다.(삼상25:43)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역대상 4장 3절에 나오는데 유다의 자손 가운데 에담 조상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 나온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아내로 삼아 낳은 자식 중에도 이스라엘이 있다.(호1:4) BC 10세기 후반 이곳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더불어 아합 왕과 여호람 왕의 왕궁 소재지가 되기도 하였다.(왕상 18:45, 왕하8:29)

지리적으로는 잇사갈의 도시 이스라엘부터 요단강이 있는 요단 골짜기 앞 벳산까지를 의미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로부터 동쪽 요단강에 이르는 평야 전체를 포함하여 부르고 있다. 에스드라엘론(‘이스라엘의 그리스어’) 평원이라고도 부른다.

이스라엘 최후의 전쟁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뿌려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최대의 평야 지역이다. 지중해를 통해 북동쪽 아람과 길르앗 산지로 합들지 않고 갈 수 있는 지형이기에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쪽 유대 산악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북쪽 하부 갈릴리를 통해 상부 갈릴리 산지로 연결되는 남북간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다. 남쪽 세력의 팽창은 북쪽으로의 확장을 원하고 북쪽 세력의 팽창은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고대의 전쟁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고 인류 최후의 전쟁도 이곳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계시록의 예언이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 요새는 하룻 샘 방문을 마치고 므깃도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곳에 오르면 낮은 구릉에 북 이스라엘 시대의 유적이 약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전쟁기념비를 볼 수 있다. 이곳에 서면 왼편으로 모레산과 오른편으로 길보아산이 눈에 잡힐 듯이 들어온다. 이곳에서 기드온의 전쟁 장면을 생각하여 볼 수도 있겠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여러 면으로 바알 신앙에 젖어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는 일만 골라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궁전 옆에 있던 나뭇의 포도원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일이다. 아내 이세벨이 누명을 씌운 재판으로 포도원 주인 나뭇을 죽이고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엘리야는 포도원에서 아합을 만나 꾸짖고 앞으로 올 그의 가문의 멸망을 경고하였다. 아합은 이세벨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알의 신앙을 이스라엘에 전파한 배역한 왕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였지만 라못 길르앗에서 벤하닷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바알 숭배와 무모한 살인의 죄가 결국 왕조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었다. 유다왕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방면 중에 쿠데타를 만나 이스라엘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보낸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추적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예후는 또한 추종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내 이세벨을 뿔 창문에서 종들에게 떨어뜨리게 하여 죽이고 굶주린 개들이 와서 그녀의 시체를 먹게 한다.(왕상 21: 23) 예후는 사자를 사마리아에 보내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잘라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하고 문어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궁정 관리들을 살해하였다. 이스라엘은 그 때의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화롭게 그치지 않았다. 나뭇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요새 동쪽 언덕 밑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평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원으로 눈이 부시게 푸른 곡식의 물결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지금 이스라엘 평야는 각종 곡물, 해바라기, 옥수수를 생산하는 비옥한 땅이다. 뿐만 아니라 대량의 양과 소가 방목되는 곳이기도 하다. 곳곳마다 물웅덩이를 만들어 양어장도 있고 평원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현재의 이스라엘 평원은 동부와 서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벳산과 이스라엘 지역이 동부이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욱스암-다불산-이블람이 서부이다. 동부 지역은 벳산과 이스라엘 페허 사이의 지역으로 약 18km정도이다. 남북 간의 폭은 길보아산과 모레산의 약 5km가 해당되는데 길보아산 밑의 하룻샘이 이 계곡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어서 하룻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서쪽의 시작 지점은 해발 40m인 반면 벳산 근처의 남동쪽 끝부분은 해저 115m로 그 편차가 크다. 이 계곡은 북부 지역의 현무암 토양과 남부 지역의 석회암 성분의 토양이 섞인 아주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으며 하룻샘으로 인해 물 공급도 원활한 곳이다.

서부 지역은 나사렛 산지의 부분과 욱스암-다불산-이블람의 삼각형 모양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길이는 36km 정도씩이다. 이곳을 ‘므깃도 골짜기’라고도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골짜기 가운데에 므깃도 성읍이 있었기 때문이다.(수17:11) 평균 해발 20~50m의 낮고 평평한 지역이 있고, 주변 산지에서 씻겨온 검은색 층적토의 점토질 토양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가운데 부분에 더욱 두터운 층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항상 천(川)에 물이 있고 풍부한 강수량으로 비옥한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고 표현한다.

이스라엘 계곡의 북쪽에는 나사렛 산지가 있으며 서쪽에는 갈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산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다불산, 모레산, 길보아산이 있다. 길보아산 밑에서 발원하는 두 개의 강이 있는데 서쪽 방향에는 지중해로 흘러가는 기순강(삿 5:21)이 있고 동쪽 방향에는 벳산을 지나 해저 225m의 요단계곡으로 유입되는 하룻강이 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한 때 골짜기의 남동쪽에 위치한 사해와 지중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계속)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O.C./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박재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om

허규담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308 / us8291@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혁모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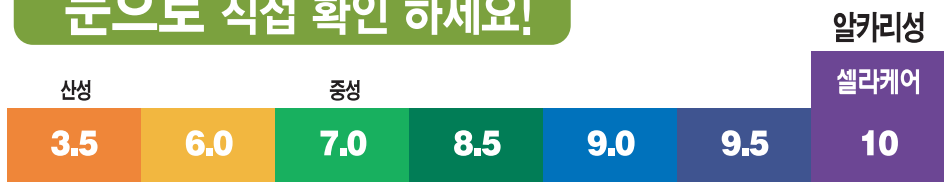
- 혈관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졸중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투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렌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원	714.333.7866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투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투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Some 38,000 attended the Harvest America event, which took place at the University of Phoenix Stadium on June 11. (Photo courtesy of Harvest America)

Tens of Thousands Hear the Gospel at 'Harvest America'

According to organizers, almost 3,000 decided to accept Christ at the evangelistic event

"Christ is the answer for all of your problems, and he can change your life," said Greg Laurie, pastor of Harvest Christian Fellowship to an audience of tens of thousands at the University of Phoenix Stadium on June 11.

Among those who attended the annual Harvest America evangelistic event, almost 3,000 made decisions to accept Christ, the event organizers said.

In a message titled, "What Is the Meaning of Life?" Laurie spoke from the passage in Luke chapter 15 in which Jesus tells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The father figure in the story, who embraces the

son after he returns home from a lifestyle of wasteful spending, is an accurate portrait of God's love, he said.

"People have a lot of weird ideas about God," Laurie said, "like he's perpetually in a bad mood, and wants to ruin our lives."

"Nothing can be further from the truth ... You want to know what God is like, look at Jesus," he added.

"Just like the father ran to the son [when he returned home] - that's what God will do for you when you come back to him."

Though some might believe they need to "clean themselves up" be-

fore coming back to God, Laurie said, on the contrary, "You need to come to God and he'll clean your life up."

Laurie recounted his own story. He grew up in a "dysfunctional" family with a "raging alcoholic" mother who was married and divorced seven times. Eventually, Laurie also had engaged in a "party lifestyle," smoking marijuana regularly and taking LSD on the weekends.

But after deciding to come back to God at 17 years old, God changed his life, Laurie said.

"Jesus said you're either for me or against me," he recounted

a preacher saying at the time he made the decision to accept Christ. "I wasn't for Jesus - did that mean I was against him? Actually, it did, and that was the last thing I wanted to do."

To "say yes" to God, Laurie said, "You have to admit you're a sinner," realize that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you," and "repent of your sin."

"Being a Christian is not just believing a creed ... or carrying a Bible ... or going to church," he said.

"There has to be a change in your heart. Being a Christian is asking Christ himself to come and live inside of you."

Meanwhile, the event was also available as a livestream on the event website. Numerous Christian music artists, including Trip Lee, Phil Wickham, Jordin Sparks, MercyMe, and NEEDTO-BREATHE were also featured at the event.

Laurie launched the evangelistic 'Harvest Crusade' events in 1990, which initially took place only in Southern California.

'Harvest America' events began in 2012, which took place in various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and has been livestreamed in more than 7,200 locations, according to organizers.

For Churches Unable to Host Their Own, A Prayer Organization Offers Free Youth Retreat

For the second time, the Full Gospel Fasting Prayer Mountain, located in Romoland, CA, will be hosting a youth retreat for those youth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that are not able to host their own summer youth retreats.

This year's retreat is themed, "Discover in Christ," and will be taking place from July 24 to 26 at the Full Gospel Fasting Prayer Mountain. Rev. David Kim from Full Gospel Korean Church of Hopewell in Virginia will be featured as the main speaker, and the retreat will include worship, seminars, and recreational and outdoor activities.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grades 6 to 12 as of September 2017) are welcome to attend the retreat. However, the free event will only be open to the first 120 individuals to register. Those who are interested can find more information about registration at www.lafgc.com.

The Full Gospel Fasting Prayer Mountain began hosting this non-denominational, joint youth



Youth worshipped and were prayed over during last year's joint summer youth retreat hosted by the Full Gospel Fasting Prayer Mountain. (Photo courtesy of Full Gospel Fasting Prayer Mountain)

retreat for the first time in 2016 with the aim to serve the local Korean immigrant churches. As many of these churches face challenges such as financial difficulties, a lack of students, or a lack of teachers, the Full Gospel Fasting Prayer Mountain decided to roll up its sleeves to provide this resource for such churches.

During the first retreat in 2016,

85 students from nine denominations and 21 churches attended. LA Full Gospel Church (LAFGC) took care of all costs, and teachers, teaching assistants, and volunteers from LAFGC served the youth. Speakers at the retreat included Dr. John Kim, the founder of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nd Sarah Kim, the president of TVNEXT.

Korean American Parents Set Out to Better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Dozens of parents attended seminars hosted by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Some 80 Korean American parents participated in seminars this month to learn more about how they can better interact with their children, manage their anger, and broach difficult topics.

The seminars were hosted by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which offers counseling, foster, and adoption services among others, and took place on June 9 and 11 at Oriental Mission Church (OMC) in Los Angeles.

The seminar on June 9 focused on advising parents how to talk with their child, and to control their anger. The speakers helped parents to understand where their anger may be stemming from,

and to more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On June 11, speakers helped guide parents in how to broach difficult topics. For instance, with the topic of sex, the experts advised parents to consider the developmental stage that their children are in when approaching the topic, and shared some points that they should remember for each developmental stage.

"KFAM will continue to host more seminars for Korean American parents, and will strive to help Korean American children and youth to be able to grow in healthy families," the organization stated.

Christianity Daily will not be issued next week.

Since 1999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썸머 스쿨 6/5(월)~7/28(금)



무료 앱 다운로드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 (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 18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Com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merstonetv.com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Magnifying Christ: Seeing Him for Who He Truly Is

BY NATHAN KWAK

Every time I visited my grandfather in the senior apartments when I was a child, I'd have to find things to play with. He had a candy jar full of coins, thousands of toothpicks taken from various restaurants, and other things I thought were strange.

But my favorite thing he owned was a magnifying glass. Now, this wasn't a cheap toy that you got from the local dentist's prize box. This was the real deal. It was thick, heavy, and worked remarkably well.

I'd take this magnifying glass and do experiments with with it. I tried to burn some ants and bored some holes in leaves. But it also opened up a portal into a microscopic world, and I'd marvel at the details of tiny things.

The concept of magnification is found in the Bible too. In Philippians 1:20, Paul writes that "according to my earnest expectation and hope that in nothing I shall be ashamed, but with all boldness, as always, so now also Christ will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NKJV). Paul's hope was that whether he lived or died, Christ would be honored.

That was his life goal. But what does it mean to magnify Christ? Well, when do you need to magnify something? When it's too small to see.

When Jesus is too small to see in our lives, we need to magnify him to see Him in greater detail. So I need to make Christ big and lift him up. I need to exalt him and show everyone how much I elevate him, as I would use a magnifying glass to look at an ant and see its intricate details and beauty.

But there's another element I miss: Christ is already of immense magnitude. He is already exalted by God. He is elevated, sitting at His right hand. He is of the highest honor and respect and awe. He's glorious. He's huge. He's no ant. In Psalm 95:4 it says of God, "In his hand are the depths of the earth; the heights of the mountains are his also."

In other words, we don't just magnify Christ because He is too small to see. We magnify him so we see him for who he really is. So, we are also called to view Him using a different lens: we need to use a telescope.

To us, Jesus can seem like a tiny, distant star that is far, far away. But

a star is actually enormous in size and weight, dwarfing our planet. For example, the star VY Canis Majoris can fit almost 3 quadrillion earths!

We need to magnify Him, not because He is small, but because in our limited, puny, sin-filled vision, we forget how truly awesome he is.

Our Christ has no need to be magnified. He is already enormous. The magnification is something we need because we've grown distant from the reality that is His greatness.

It is such a comfort to know that this very big Christ is the very same Christ who died for me, who promised to never leave nor forsake me, and who is my shepherd through the Valley of Death. Colossians 1:27 says that Christ is IN me. Let us magnify Christ, so that he is not only seen in our lives, but that we see him for the greatness that he truly is.

Nathan Kwak is the youth pastor at Good Stewards Church, located in West Covina, CA.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Seven Personality Types of Sick Churches

BY THOM RAINER

Sick churches become dying churches.

Dying churches become closed churches.

Those statements are factual unless some type of change or intervention takes place. But intervention or change is unlikely unless the church recognizes that it is sick.

In simple terms, we must first be aware that many of our churches are sick.

In order to help create greater awareness, I have described illustratively seven personality types of sick churches. For certain, no one church is a perfect illustration of any one type. But I am confident you will recognize churches that have taken on one of these seven as a dominant personality type.

The Denier. Several years ago I did a consultation at a church in the Midwest. The church's worship attendance had declined by over 60 percent the past ten years, but most of the members I interviewed told me the church was fine. That church will be "fine" all the way to its closing.

The Deflector. In these churches you hear constant complaints about what others outside the church are doing wrong. It's the denomination's fault. It's the culture's fault. It's the young people's fault. And, too many times, it's always the pastor's fault. Thus the church's pattern is a series of short-

term pastorates.

The Cool Kid. These churches are rarely viewed as sick. They are typically growing numerically, and often are seen as the cool church in town. But their growth is largely tied to a single ministry, like bus ministries of the past, or to a charismatic leader. When the charismatic leader or the hot ministry goes away, the church declines dramatically. This illness is particularly dangerous because of its superficial appearance of robust health.

'Intervention or change is unlikely unless the church recognizes that it is sick.'

The Nostalgic. The nostalgic church lives in the past. It longs for "Brother Bill," the pastor of thirty years ago. The members are convinced if they would just return to music styles and programs of the past, everything would be fine. These churches grow increasingly unhealthy because they exert so much effort to resist change.

The Street Fighter. These churches are downright mean. Their business meetings are more like a street fight. Bullies and critics often control the church, while the majority of the members remain silent in cowardly fear. The healthier

members exit quickly, exacerbating the sickness of the mean church.

The Autopilot. These churches do things the way they've always done them because they know of no other way. They don't necessarily resist change, because they don't even see the need for change. As long as we do the church the way we did it in 1974, we will be fine.

The Living Dead. There are few active members left in these churches. Most of the members recognize the church is sick, because the worship center is 83 percent vacant. Often the remaining members become desperate and somewhat open to change. Unfortunately, it is usually too late to do anything. The church is on the precipice of death.

I share these less-than-pleasant realities with the prayerful hope they could be used by God as a wake-up call to leaders and members of sick churches. And in my next post, I will share the dismal topic of the six stages of church death with that same hope and prayer.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June 7,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Thom.S.Rainer.

World Disability and Deafness Conference 2017
제 28 회 여름 산상대부흥성회
세계 장애인과 일어나서 함께 가자
With the physically challenged of the world
(아 2:13)
E-mail: ellim54@hanmail.net
http://www.ellim1004.com
2017년 7월 24일(월)~28일(금) 까지
새벽 6시 · 낮 11시 · 저녁 7시 30분
포천, 한국중앙기도원
주최: 엘림 장애인 선교회

Texas Governor Signs Bill Protecting Religious Child Welfare Agencies

Texas Governor Greg Abbott signed a bill on Thursday that would allow religious child welfare agencies to operate according to its religious beliefs without fear of penalty.

House Bill 3859 was passed in both chambers of the state legislature in May, with a 93 to 49 vote in the House, and a 21 to 10 vote in the Senate.

The bill has been controversial. Supporters said that the bill is a necessary measure to protect faith-based agencies from facing penalty for adhering to their religious conscience, such as by refusing to place children in certain potential foster families, or placing children in religious schools. Opponents argued this bill would give religious agencies the license to discriminate against individuals such as those in the LGBT community.

"It is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to maintain a diverse network of service providers that offer a range of foster capacity options and that accommodate children from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the bill text reads.

"To that end, the legislature expects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be made by the state to allow people of diverse backgrounds and beliefs to be a part of meeting the needs of children in the child welfare system," the bill goes on. "Decisions regarding the placement of children shall continue to be mad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Texas Governor Greg Abbott speaking at the 2012 FreePac. At the time, Abbott was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Photo: Gage Skidmore / Flickr / CC)

child, including which person is best able to provide for the child's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needs and development."

However, opponents argue that the law's intent was "never about the best interests of Texans or of children, but about forwarding a political agenda to codify the permission to discriminate against LGBTQ Texans into state law," as GLAAD's president Sarah Kate Ellis said in a statement.

House Rep. James Frank, who sponsored the bill, rejected claims that the bill is discriminatory, saying foster families will always have options other

than religious agencies from which to receive foster children.

The bill "seeks to protect faith-based providers from adverse actions for exercising their deeply held religious beliefs," Frank said.

"At the same time, it requires the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o ensure alternative providers are present to offer any service denied for reasons of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he added.

"Not one foster parent/family who wants to provide a home for our kids will be denied from doing so. Not one."

International Community Voices Concern and Condemnation Following Death of Otto Warmbier

The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death of Otto Warmbier, the 22-year-old who had returned from his detention in North Korea in a coma, has been a mixture of emotions, among them condemnation, sympathy, and concern for the current detainees and for future travel into the reclusive country.

Warmbier was arrested and detained in January of 2016 when he was trying to leave the country, and was accused of trying to steal a propaganda poster. Though he was sentenced to 15 years of hard labor, he was suddenly released and returned home on June 13, at which point he was already in a coma state.

Doctors at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Medical Center said they found no signs of physical beating, but that Warmbier had extensive brain tissue damage, possibly caused by a cardiopulmonary arrest.

In a statement, Warmbier's parents noted that Warmbier "looked very uncomfortable — almost anguished" upon his return from North Korea. However, they added, "within a day the countenance of his face changed — he was at peace. He was home and we believe he could sense that."

International leaders and politicians have condemned North Korea, with U.S. President Trump calling the incident "a disgrace" and describing the country as "a brutal regim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

In, meanwhile, said that "we cannot know for sure that North Korea killed Mr. Warmbier," but that he still believes "it is quite clear that they have a heavy responsibility in the process that led to Mr. Warmbier's death."

"We're praying for Otto's family tonight," tweeted Vice President Mike Pence. "A tragic example of North Korea's disregard for human life."

Many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health and condition of those still imprisoned in North Korea, and for the people who live there.

Kenneth Bae, a Korean American missionary who had previously been detained and released, said that he mourns with the Warmbier family, but added that there are others still within North Korea who are in need of help.

"As we grieve Otto's passing, I also want people to know that other Americans remain detained in North Korea right now," said Bae.

"There are three Americans — Kim Dong Chul, Tony Kim, Kim Hak-Song — and the Canadian pastor Hyeon Soo Lim. But there are certainly many other people living without freedom in the country of 24 million people — enduring horrible circumstances and forced labor — and we do not even know their names."

"We plead with the US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leadership in North Korea to value human lives," Bae continued. "Every life is important — Otto's life, lives of the

American detainees, and the lives of each person in North Korea."

Warmbier's death is the result of a lack of access to basic human rights, said Tomas Ojea Quintana, the UN's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t the time that Warmbier was returned home in a coma state, Quintana said that the incident "serves as a reminder of the disastrous implications of the lack of access to adequate medical treatment for prisoners in the DPRK."

"His ordeal could have been prevented had he not been denied basic entitlements when he was arrested, such as access to consular officers and representation by an independent legal counsel of his choosing," he added.

The Human Rights Watch, which conducts research and advocacy on human rights, said in a statement that "Warmbier's death should be a wake-up call to governments that focus must not just be on security, but also human rights concerns when dealing with Pyongyang."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must now recognize that they can expect no special treatment from Pyongyang for their detained nationals," the group added. "Only by making human rights a primary demand — for everyone in North Korea, citizens and foreigners alike — can they reasonably hope to change Pyongyang's abusive practices."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org



사랑의 띠 선교회 창립 18주년 감사예배



강사 류창렬 목사 (필란 나눔동산 교회) 김천환 선교목사 (사랑의 띠 선교회) 김민경 선교사 (카이로스 바디워십 선교회) 에스더 진 선교사 (소프라노) 카이로스 울동팀

- ▶ 일 시 :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 설 교 : 류창렬 목사 (필란 나눔동산 교회)
- ▶ 울 등 : 김민경 선교사 (카이로스 바디워십 선교회)
- ▶ 특 송 : 소프라노 에스더 진 선교사
- ▶ 예배장소 : 1300 W. Olympic Blvd, #200 LA, CA90015 (사랑의 띠 선교교회)

- 저녁 식사는 6시 15분 부터 준비됩니다. (이중 주자는 금해 주세요)
- Parking 은 건물 뒷편 open 주차장과 7시 이후는 건물 좌우 대로에 세우셔도 됩니다. (지하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문을 열어 드립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ond of Love Mission – Elim Disability Ministry LA

사랑의 띠 선교회_ 한국 엘림장애인 선교회 LA지부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동안 주변의 방황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며 힘을 얻게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민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에게는 구제와 봉사과 취업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 조국의 한국 엘림장애인 선교회 LA 지부의 사명을 맡은 해가 벌써 18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까지 인도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창립 18주년 감사예배**를 올려 드리기를 소망하여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져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고 또한 우리 사랑의 띠 선교회가 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미주 LA 지부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한국의 장애우 영혼구령 사역까지 도울수 있도록 성장 시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동참하시어 함께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 합니다.

사랑의 띠 선교회 김천환 선교목사 외 회원 일동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

본 교단과 노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과 사명은 있으나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였거나 강도사 인허를 받지 못하신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지만 선교사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 본 교단에서 선교사 라이선스를 수여합니다.

- 자격
 - 1)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단, 이단은 제외되며, 나중이라도 이단임이 밝혀질 시 모든것은 자동으로 취소됨)
 - 2)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아 이시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자 헌신된자. 서류 : 소정의 응시원서, 추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기자신의 신앙고백서
- 시험
 - 1) 강도사 : 소정의 2주간 교육후 시험을 분후 강도사 인허
 - 2) 목사 : 소정의 교육후 시취후 목사안수
기간 :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서류전형)
주최 : *All The Nation International Evangelical General Assembly
*Koam Presbyterian Church
*The Hap Dong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신,편입생 모집

본 신학대학원은 개혁주의 학교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학교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캘리포니아 주교육국에 종교학교로 정식 인준 받은 학교입니다.

■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모집합니다.
특히 타 학교에 없는 지역에서 필요한 학과들이 많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사회복지학과와 크리스찬 레크레이션, 스포츠 코칭학과가 준비되어있으며, 비영리 종교단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나 사전 연락후 방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고 : 교단이나 학교는 다른 어느단체나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충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총장 : Dr. DAVID LEE, 학장 : Rev. YO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 (213)422-8916, (213)386-0300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풀잎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시인이 아닙니다. 시를 써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시를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시인은 아니지만 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시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시인들의 마음과 눈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시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것을 보고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시인들은 작은 것들을 귀하게 만들어주고, 작고 소외된 것들이 빛을 발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까지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놀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시인은 풀잎과 꽃잎에 어느 날 관심을 기울여 바라보았습니다. 풀잎과 꽃잎은 작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늘 조용히 서 있습니다. 풀잎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인은 가던 길을 멈

추고 무릎을 꿇고 풀잎을 바라보았습니다. 풀잎 사이에 핀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감추인 상처를 보았습니다. 풀잎과 꽃잎 속에 상처를 보려면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오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보면서 시인은 자신 안에 감추인 상처를 보았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풀잎들이 손을 흔들어 주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림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크 네포(Mark Nepo)는 “깊은 배움은 깊은 흔들림이 수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깨달음은 깊은 깨어짐에서 옵니다. 흔들림과 깨어짐이 없이 어떻게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 보려면 깊이 흔들려야 합니다. 깊은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이 풀잎과 꽃잎에서 상처를 본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 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꽃잎입니다. 꽃을 형성하고 있는 꽃잎과 꽃을 감싸고 있는 꽃잎이 꽃을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시인은 꽃을 빛나게 만드는 꽃잎 속에 감추인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만들어 낸 향기를 맡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 입은 꽃잎들이 향기를 만들어 내었을까요? 꽃잎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용서한 까닭입니다. 상처는 용서를 통해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용서가 없는 상처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성화된 상처는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마치 찌꺼기 찌꺼기수록 더욱 향기를 발하는 향나무처럼 향을 발하게 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찌는 도끼에 향을 발라줍니다. 향나무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향을 나누어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작은 풀잎이 되기도 하고 꽃잎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상처 입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알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보혈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향기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손길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부디 상처를 통해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두 묵상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한 인생을 살다간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나면 그 자리가 한없이 허전한 이유도 고인이 남기고 간 흔적 때문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흔적이 느껴져 마냥 그리웁습니다.

직업상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지만, 저를 지켜보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저를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저의 옷매무새를 보는 분, 양복과 넥타이 색깔이 잘 매치되었나 보시는 분,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제가 머리를 잘 빗었는지 보실 것이고, 안경점을 하시는 분은 제 안경이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지 보실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저의 혈색을 살피며 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구두 가게를 하시는 분은 제 구두가 잘 닳아 있나 보실 것입니다.

저는 일 년에 한두 번 LA 다운타운에 강의하러 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학교

근처 구두방에 제 구두를 맡기는 일입니다. 주로 뒷굽에 고무를 박아 구두가 닳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작업이라 잠깐 기다리면 서 수선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몇 년이나 이 구두방을 하셨어요?” “이민 와서 시작했으니까 한 20년은 되었죠.” “정말 오래 하셨네요. 아저씨 혹시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줄 아시나요?” “대충 알죠, 하하.” “아, 그렇군요.”

별 희한한 질문을 다 한다 싶은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 말 저 말 쏟아내십니다. “신발도 인격이 있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

은 것이라, 주인이 잘 대해줬는지 아니면 막 대했는지 티가 나죠.” 그 말을 듣는데, 구두약을 잘 발라주지 않고 가끔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때 일 년에 한두 번 닦아주는 것이 전부인 저는 괜히 죄짓다 들킨 양 뜨끔했습니다. 거의 다 닳은 고무를 집게로 뜯어내고 새 고무를 뒷굽에 박고 계시는 아저씨에게 “다들 저처럼 바깥쪽으로 구두가 닳죠?” 물었습니다. “다 달라요. 안쪽이 닳는 분도 계시고, 뒤가 닳는 분도 계시고, 굽은 멀쩡하고 앞창이 닳는 분도 있어요.”

구두가게 아저씨는 나름 20년의 노하우로 구두만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짐작할 수 있나 봅니다. 훗날 더 이상 구두를 신을 필요가 없을 때, 내가 두고 가는 구두들이 나의 인격을 대변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구두약도 잘 발라주고 걸을 때도 인격 있게 남아지는 구두가 되도록 조심히 걸어야겠습니다. 내 구두가 남길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일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던 조지 헛필드 목사의 말이 자꾸 생각나는 날입니다.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정기정 목사
샘물교회

폐쇄된 집단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진나라 때부터 중국 왕들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중국이 북방 민족에게 반복적으로 침략당하고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로마는 점령하는 지역마다 방어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닦아왔습니다. 전차와 군사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냈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이었던 로마는 천 년이 넘도록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임을 증명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초대 교회에게 세상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을 전도할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체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

나 요즘은 예배당을 짓는 개척의 의지보다는 믿는 자들을 위한 ‘궁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워 보입니다. 각종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 교회 사람을 만들기 위한 훈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교회에서만 통하는 사람이라는 속칭, ‘교회 오

빠, 교회 언니’라는 명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최적화된 사람들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속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보내야 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미용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가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하고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조차 교회 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전도 한 명 할 수 없는 소위 ‘폐계달’이 되고 만다는 것은 우리 인식과 교회 전략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담대히 세상으로 침투하여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복음으로 지역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C 의료 선교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약을 먹어도 별 치료를 다해도 애를 먹이는 **고질병, 손목관절,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관절, 이명, 고혈압, 목 아픈 갑상선, 고혈압 환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30명 선착순 무료 치료

30명 선착순 선교차원에서 무료 치료합니다.
- 국제 침술사 제임스 남

열쇠 기술 속성반 모집

- 1년은 배워야 하는 과정이나
- 3개월 안에 연수, 졸업장, 자격증을 드립니다.
- 극히 작은 장소에서 영업 가능
- 극히 작은 자금으로 영업 가능
-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자영업
- 미국 학교에서 정식 연수한 최고 기술로서
- 40년간 경력에 있는 열쇠 세계 최고의 고수 김재홍 선생이 직접 전수합니다.



연락처 : T.(213)298-8384, T.(907)229-5575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A, CA 90019

무엇을 위한 인연인가?

열왕기상 17:8-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아합 왕 때 그가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는데 그는 신앙이 이성 자율주의적 경향으로 제멋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통성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시집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미신우상을 가지고 왔고 원래 의지심이 약하고 인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아합을 쉽게 사로잡아서 왕비가 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인 이세벨이 실제적인 통치권을 잡게 되면서 전 이스라엘의 비극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제사장을 850명이나 세워서 국비로 생활을 보장하게 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권력으로 바른 진리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쯤대 없이 신앙인격이 뿌리내리지 못한 믿음 약한 사람들은 우선 육신의 형편이 덜 시달리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신앙을 헌신처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밤에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그 땅에 초목이 살 수 없도록 하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아합에게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릇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게 하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들어 쓰시는 사역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열성을 다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한 최저 생계대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으로 그렇게 그곳에 있던 중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내의 물이 다 말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을 찾아 나서든지 땅을 파보든지 했을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으니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강물 마름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형편처지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자기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신 후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게 하시고 훨씬 더 나은 대책을 예비해 주심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릇 시냇가는 편히 누워 잘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디. 엘리야는 그곳에서 여러 날을 기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를 공개하도록 예비해 주신 것은 그가 그릇 시냇가에서의 시련에 합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청하고는 물을 가지러가는 그 과부를 향해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를 잘못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말재간 떨어져 빼앗아 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말씀에 기대를 걸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어져서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엘리야를 처음 모셨을 때는 아마 구세주와 같이 하나님처럼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것으로 공개하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집 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부나 그 집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섬기는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섬기는 일을 귀찮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시험에 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동물이 될 드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나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푸념합니다. 벌써 모자가 죽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동안 엘리야 덕분에 살아왔던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죽은 그 아이를 달라하여 그가 우거하는 다락방으로 옮겨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할일없이 과부의 공개만 받으며 살아왔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인하여 이곳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푸념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과 그 아들의 죽음은 육신의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적인 구원까지 얻어야 하는 목적으로 맺어주신 것이며, 나태해진 하나님의 사

자인 엘리야를 각성시켜 사역에 있어 새 출발시켜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도하신 이유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속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는다고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도리어 영적인 소망에 믿음으로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환란을 당하게 하십니다. 때문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실패와 쓰라린 수모와 곤욕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역술한 손해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한 자격 갖추기를 서둘지 않고 허무맹랑한 일에 골몰하며 시간과 정욕을 잘못 허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무슨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도한 일이 적중되어 성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회개하고 엘리야도 과부에게 영적인 소망을 일깨워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 엘리야와 과부에게 기대하셨던 영적인 소망이 바른 자세로 회복을 보게 되니 죽은 아들의 영혼을 되돌려 주심으로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의 인연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213)643-0301 / Fax: (21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재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학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 의사 Zo'e 조애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성가,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망, 대망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60 (디자인 포함) \$65 (표지 디자인 포함) \$140 (인쇄물 포함)
신년맞이 패키지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 Free)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 발가락 {손통, 발통, 질환} 손통, 발통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제1회 미용선교사 양성을 위한 헤어컷 아카데미 10주 코스
10주만에 미용사(헤어드레서)가 된다면.....
 선교지에서, 전도의 장에서, 봉사의 장에서, Job(잡)으로
 당신도 10주만에 Hair Cut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아시아 대회 우승자 김인태 집사가 직접 남·여 헤어컷을 집중적으로 개인지도 합니다.
과목 : 단발, 이사도라, 스파니엘, 중간 레이어 컷, 롱레이어 컷, 숏트 컷, 남성 컷, 샹기 컷, 상고 컷, 스포츠형 컷, 유행 컷 등..
회비 : \$500(\$200불 상당 미용키트 포함) 가위 2개, 크리퍼, 레저컷 용, 마네킹, 꽃이, 빗, 스프레이 등
디플로마 증정 *간단한 다과, 음료, 파킹
• 일시 : 6월 29일(목) 오후 7:00 ~ 9:00
•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등록 및 문의 : T.(213)434-1170, (213)739-0403
• 선착순 모집 : 10명
• 주최 : 기독교일보
 강사 김인태 집사(나성순복음교회)
 전 국가대표(86년) 아시아 대회 우승자
 현 세미나 강사
 팔레스티나 미용대학 초청강사
 Queenstone Colleague 강사

신간 도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한홍 | 규장 | 312쪽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안내한다.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신년 40일 특별새벽기도 메시지를 담았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 목회 현장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길은 있다고 단언한다. 물론 그 길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그 길을 따라 담대히 갈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열정적으로 전한다.



추천 도서

골리앗같은 미래 어떻게 이길까?

미래라는 골리앗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직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직종은 바로 '미래학'이다. 물론 앨빈 토플러처럼 20세기 말에 문화와 사회의 변천사를 통시적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21세기의 사회를 예측한 것이 어찌면 미래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여러가지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으며, 유발 하리리는 대중적 글을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인문, 역사, 사회, 경제 등의 통합적 학문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간과 사회의 모습들을 합리적으로 예견하고 설명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포스트휴먼'이라는 말도 있다. 기계와 인체가 하나를 이루고, 컴퓨터와 생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영화 매트릭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공부할 하지 않고 컴퓨터 칩을 뇌와 연결시키거나, 약물이 아닌 기계신호와 생체신호를 일치시켜 기억뿐 아니라 정서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절하며, 유전자 기술을 통해 '불로초'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단순한 사회와 윤리적 문제를 넘어선다. 더 이상 '신(神)'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종교의 방향성이 내세와 교리, 그리고 신조를 강조하는 수직적 종교는 쇠퇴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신의 임재와 교제를 추구하는 수평적 종교가 선호될 것이라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의 기성세대인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할 심각한 신앙적, 사상적, 문화적 도전이다. 이러한 미래는 이미 우리 현실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던 무시무시한 전사 골리앗(과학, 문화)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미래와 다윗 목상

본서는 총 3부 20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나를 넘어 도전하라'는 주제로 7편의 글을 실고 있다. 여기서는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이유와 상황, 그리고 저자의 독특하고 기발하지만 엉뚱하고 창의적인 '만약 ~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적 질문을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들을 입체화시킴으로 가독성을 높여 책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또 성경의 내용과 이야기들에 '왜?'라는 질문들을 함으로써, 저자의 진지한 성경해석 방식을 통해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1부의 주제

는 다윗을 향한 반대와 저항하는 자들의 내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독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성경에는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성공이 기록돼 있는데, 역으로 '만약 실패했다면 어땠을까?'를 보면서 우리 현실 속에 빈번히 일어나는 '믿음의 실패'에 대해 다윗을 통해 가상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다윗의 승리가 맹목적 믿음의 승리가 아니고, 골리앗을 이기기까지 수많은 훈련과 노력이 있었음을 놓치지 않게 한다.

2부는 '새로움을 꿈꾸라'는 주제로 7편의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는 승리와 성공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 끊임없는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남들이 가는 길을 답습하고, 성공한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자 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갑옷과 검, 방패와 투구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물뿔들을 단련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함으로 승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비웃거나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마지막 3부는 '오늘, 미래를 바꾸라'로서, 6편의 글들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해내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미래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거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은 미래나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골리앗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당대 최선의 과학 기술로 만든 갑옷과 무기들을 의지하여 싸웠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말해주고 있다.

당신은 사울인가 다윗인가?

3천년 전 골리앗은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

라엘에 쳐들어왔다.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며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다. 사울 또한 건장하고 준수한 전사였지만, 골리앗과 체격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울과 골리앗의 차이는 체격의 차이만이 아니었다. 당시 골리앗이 속해 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 중 철의 생산을 독점하는 나라여서,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는 이스라엘과 무기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는 감히 골리앗과 맞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적 변명만 늘어놓지 않았다.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그는 사울의 갑옷과 검, 투구 등을 착용해 보았으나,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사자와 곰을 잡았던 돌맹이를 선택했다. 한 번 상상해 보라. 철갑옷과 철무기로 무장한 거구의 전사에게,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은 양을 치는 막대기와 돌맹이로 골리앗과 맞섰던 것이다.

그렇다.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세상의 문화와 과학과 기술들은, 과거의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무시무시한 골리앗임이 틀림없다. 이 골리앗은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외친다.

저자는 성공학, 미래학, 심리학, 종교학 등을 종합하여 언급하면서, '미래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울이 아니라 또 다른 다윗이 될까?'를 물으며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누군가가 말한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재앙'이라는 말을 가정과 교회는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이 되었으며, 초월적 하나님의 섭리만을 기대하는 종교교의 도피는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세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기존 신학적 범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들이 턱 밑에 도착했으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학이 현실을 부정하며 과거만 들먹이는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본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신학생들과 교회의 미래가 만나야 할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한 경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도현 목사(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함께하니 참 행복합니다

문성모 | 두란노 | 356쪽

목회자·설교자에, 사회복지사이자 시인까지 섭렵중인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저자는 권 목사가 겪었던 일들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시련에서 극복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등을 통해 드라마를 보듯 정리했다. 삶과 신앙 이야기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내면세계도 탐색했다.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본 이야기도 담았다.



시대의 끝에서

박경미 | 한티재 | 276쪽

책에서 독자들이 다시 만나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 인물과 사건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마주하는 과제들로 되살아난다. 그 과제들은 비단 정치적·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라, 애써 외면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는 문명의 위기, 인류 생존의 위기이다. 저자는 위기에 대한 직시와 성찰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모교에 신약성서학 교수로 있다.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이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소리엘과 함께 하는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 콘서트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대표곡
아름의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새벽이슬 같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는 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낮은 자의 하나님, 왜, 전부, 그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소리엘 장학제
영동중앙교회 출석 (장로교 합동) 성결대학원 신학부 목회학과 M.div 나사렛대학교 교수 / F신흥대학 교회실용음악과 교수 YWAMFUNIVERSITYOFFNATIONSFDTSF스위스 로잔 1997 CCMFMUSICAWARDF2007, 2008F대상 FEBCF극동방송국 복음성가 대상 복음성가협회 최우수 가수상, F대상 한국 컨터넬탈 싱어즈 장단멤버 굿네이버스 나눔 홍보대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후 7:00
장소 : 갈보리믿음교회(강진웅 목사 시무)
문의 : T(213)365-8880

일정문의 : 877.499.9898 (한국어 2번)
굿네이버스 3505 Cadillac Ave M201, Costa Mesa, CA 92626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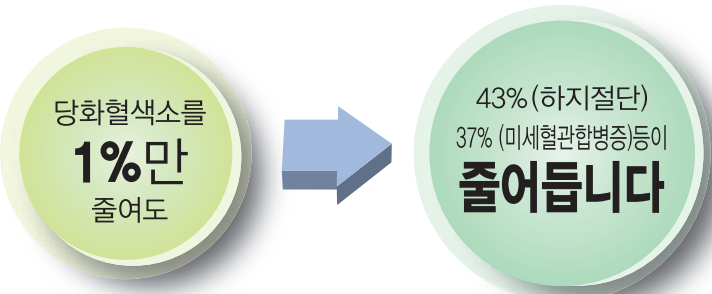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대학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